

중국보급 불경 6천권 복원

전문가 15명 동원 작년부터 ... 마무리 한창

대개원사 도원 스님

1000여년의 풍상과 관리 부재로 인해 훼손 위기에 직면했던 중국의 진귀한 불경 6천여 권이 한 사찰 스님의 노력에 의해 제 모습을 찾게 됐다.

중국 복건성(福建省) 천주(泉州) 대개원사(大開元寺) 주지 도원(道元)스님은 복건성 정부에 협조를 요청, 장경의 표구와 표지를 견고하게 하는 등 복원에 나서 불교문화를 고스란히 전래

하는 무량공덕의 큰 일을 해냈다. 중국 아호신문(雅虎新聞)이 1월 24일 보도했다.

천주 대개원사는 120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천년고찰로서 당나라 초에 건립되었다.

특히 개원사 장경(藏經)은 진귀한 성보 가운데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개원사 장경은 회소성은 물론 소장 장서도 매우 많아, <송적사장경(宋續藏經)> <일본홍교(弘教)장경> 전집 등 근대에 인쇄된 것 외에도 복속 각

본(原本), 송각(宋刻) 원인(元印), 명판(明版), 청판본(淸版本) 등 2만여 책(冊)을 소장하고 있다.

이러한 귀중한 불교문화재를 훼손에서 구하고 보존하기 위해 도원스님은 자금을 모으고, 전문인들의 수차례 조사 절차를 거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결국 국가 공문서로 보관하기로 결정, 복건성 문서국에 지원을 요청해 복원절차에 들어가게 되었다.

해외불교 담당 = 김재경 기자 jgkim@buddhania.com

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치유해 보자는 취지로 만나게 됐다. 토론 주제도 '불안정한 시대(Fragile times)의 리더십, 함께 하는 미래를 위한 비전'으로 정해졌다.

이들 종교지도자들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나타난 반(反) 서방 의식과 반세계화 흐름, 최근 중동사태에서 나타난

었다. 문서국은 15명의 전문가가 2001년 5월부터 개원사 장경각에 상주하면서 국가 공문서 1급 표준에 맞추기 위해 경서의 표구를 더욱 견고하게 하고, 책 표지를 경지판(硬紙板)에서 장목판(樟木板)으로 바꾸도록 했다. 현재 복원공정은 마무리단계에 들어갔으며, 표구한 경서는 무려 6075권, 26만 쪽에 달한다.

이번에 복원된 경서는 북송대(1085년 이후)의 <마하반야바라밀경>, <대방광대집경> 및 <대운륜청유경(大雲輪淸雨經)> 등 인명대의 국보급 경서가 대부분이다. 이들 귀중한 불경들은 중국의 인쇄역사상 중요한 연구 자료로 제공될 전망이다.

탄압받는 종교인 북한에 20만

美的희 청문회

북한 노동당이 반당 혁명분자로 체포한 종교인이 20만명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미 의회 산하 연방 종교자유위원회(회장 마이클 영)가 1월 24일 개최한 청문회에서 김상철 탈북한민보호운동본부장이 증언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김상철 본부장은 "북한의 종교탄압정책은 극비사항이기 때문에 증거확보가 매우 어렵다"면서 "북한 노동당이 반당 혁명분자로 체포한 기독교와 천주교, 불교 등 각종교인수는 20만명에 달하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은 각종 종교인은 수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종교기관을 통해 이뤄지게 함으로써 종교의 자생능력이 북한정부와 북한인에게 인식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지 스님의 감춰진 불교이야기

22. 대불조성의 사상적 배경은?

바미안 대불이 파괴된 지 1년이 되어 간다. 외신에 의하면 두 대불을 복원하려는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한다. 바미안의 대불은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인도와 이란을 연결하는 고대 교통의 요충지, 바미안 협곡에 위치한 높이 55m의 서대불(西大佛)과 35m의 동대불(東大佛)이다. 이 웅대한 바미안 대불을 조성한 불교도들의 신앙과 지혜는 돈황과 낙양의 용문석굴, 대동의 운강석굴

있던 특수한 사상이며 불교적 형태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특히 법현과 현장의 여행기에 "여러 종류의 관경을 입수하였다"는 등의 바미안의 대불과 타락(陀羅)의 미륵상에 대한 기사를 실고 있어 관상경전이 크게 영향을 준 당시 중앙아시아 불교의 상황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이 자리에서 김상철 본부장은 "북한의 종교탄압정책은 극비사항이기 때문에 증거확보가 매우 어렵다"면서 "북한 노동당이 반당 혁명분자로 체포한 기독교와 천주교, 불교 등 각종교인수는 20만명에 달하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은 각종 종교인은 수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승수(445-518) 스님이 편찬한 한역대장경 총목록(출삼장기집)이래 현대까지 작성된 한역경전의 목록은 경전의 제목에 '관(觀)' 자가 들어

관상(觀)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 문제는 바로 "관상 6경의 특성을 말해주는 '관'은 무슨 의미인가"는 것이다. 일찍이 일본의 다카구스는 <관무량수경>을 영역하면서 '관' 자를 선정을 의미하는 범어다란, 즉 'dhyāna'로 옮기고 그보다 이전의 난요분유도 <대명삼장성교목록>을 영역하면서 'dhyāna(?)'라고 옮기고 있다. 그러나 이 '관' 지의 원의에 대해서 가장대사 길장은 그의 <관무량수경주>에서 "서역의 말, 아라리를 여기서서는 관이라고 한다고 적고 있으며, 신라 경흥스님은 <삼미륵경소>에서는 "관이란 갖추어 말하면 아라리이다. 이는 반관(反觀)이니 마음을 부지런히 뒤야 묘계(妙界)로 향하기 때문에 관이라고 한다"고 적는다. 그러므로 관상 6경의 '관'은 단순한 dhyāna가 아니라 āra(觀)라는 함의를 갖고 있으며 관행, 관상, 관불삼매의 수행을 의미하는 '관'은 "의 관상에 관한 성스러운 경전"으로 해석되어야함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관불 등 관상수행

불교 호국사상 연관

간 여섯 가지 경전이 있다. 즉 ①<관불삼매해경(觀佛三昧海經)> 10권 ②<관무량수경> 1권 ③<관보현보살행법경(觀普賢菩薩行法經)> 1권 ④<관미륵보살상생도솔천경(觀彌勒菩薩上生兜率天經)> 1권 ⑤<관허공장보살경(觀虛空藏菩薩經)> 1권 ⑥<관악왕약사보살경(觀藥王藥上二菩薩經)> 1권 등이 바로 '관' 자가 들어간 관상 6경(觀想六經)이다.

이 관상 6경의 역경 연대를 살펴보면 모두 동진에서 유송에 이르는 5세기 초에 집중적으로 역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중국한역불전의 성립사로 볼 때 이 6경은 역출과 성립시기를 전후로 중역(重譯)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관상 6경은 공통적으로 범본이 현존하지 않는다. 다만 <관미륵보살상생도솔천경>만이 티벳대장경 델케판에 편입되어 있을 뿐이다. 또 한 가지 본경의 특수성을 알 수 있는 것은 관상 6경의 역출자들이 모두 중앙아시아 출신이라는 점이다. 즉 관불삼매와 정토왕생을 강조하는 사상은 서기 5세기 경, 중앙아시아 불교의 주류를 이루

이 된다"며 "이러한 위험을 막기 위해서는 오늘날 관상자들의 주된 양성소 역할을 하고 있는 원리주의적인 여러 종교를 내부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토플러는 "세계적 패권과 영향력을 다투는 치열한 싸움에서 종교는 정부와 다국적기업, NGO, 그리고 여타 조직들보다 도덕적으로 더 우월한 지위를 주장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종교가 내부 관상자들의 근거지를 색출, 파괴하며 자율적인 정화절차를 마칠 때까지 종교의 도덕적 정통성은 항상 위협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처럼 초월적인 거대함을 갖춘 불상의 관상은 분명히 관상 6경에서 설해지는 관불, 관불삼매, 관정토(觀淨土)의 사상처럼 '관'이라는 시각동사(觀動詞)를 사용하고 있는 관상수행과도 연관이 있다. 부처님과 정토에 대한 관상에서 시작된 교리사적, 신앙사적 변화는 바로 북방계 대승불교 특유의 호국사상과 매듭을 갖게 되면서 국가적인 규모의 대불조성의 유행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종교·정치갈등 해결모색

세계경제포럼 43개 종교단체 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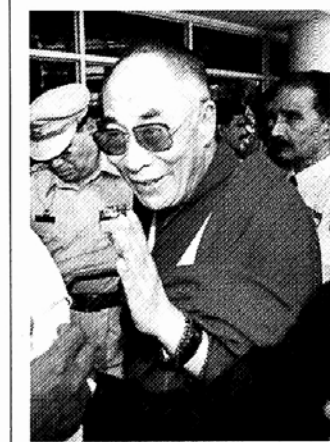


세계 각국의 정치 지도자, 경제 각료, 재계인사 등이 모여 세계적

인 관심사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세계경제포럼(WEF)에 종교지도자들이 처음으로 참석해 화제다.

1월 31일부터 2월 4일까지 뉴욕 맨해튼 월드포 아스토리아 호텔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 제 32차 연례 총회에 참석하는 종교지도자들은 대만 불광산사의 성운 대사와 남아공의 투투 주교 등 세계 43개 종교단체 대표를 이룬 미국의 9.11 테러 이후 표출되고 있는 정치, 경제, 종교적 갈등

종교, 인간감동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한다. 3일 열리는 미래의 패러다임, 종교적 차이의 극복, 이슬람의 목소리 등의 주제를 비롯해 문명간의 대화를 위한 도덕적 수단의 강구, 분열된 사회를 잇기 위한 공통가치의 창출 등 다양한 주제로 인류평화를 위한 종교인들의 지혜를 모은다.



달라이 라마가 1월 27일 경호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뭄바이 릴라와티병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달라이 라마 건강 호전

칼라차크라 법회중 복통 입원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가 복통으로 인도 뭄바이의 한 병원에 입원했으나 양호한 건강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CNN방송이 1월 27일 보도했다. 이 방송은 보드가야 칼라차크라(시간의 수레바퀴) 대법회 참석을 위해 인도 뭄바이의 보드가야 사찰에 머물러온 달라이 라마가 지난 주말 복통으로 헝기와 전세기편으로 뭄바이의 릴라와티병원으로 이송돼 정밀검진을 받고있다고 전했다.

달라이 라마 대변인은 그가 작년 12월 15일부터 복통을 호소해 왔으며 의료가 정밀검진을 권고해 입원이 이뤄진 것으로 설명했다. 병원 측은 달라이 라마가 혼자 거동이 가능하고 말을 할 수 있는 등 양호한 건강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으나 일부에서는 그의 위에서 종양이 발견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달라이 라마는 이곳에서 1월 21일부터 시작된 칼라차크라 대법회의 축제를 이끌 예정이었으나 복통으로 모든 일정이 취소됐다.



달라이 라마가 1월 27일 경호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뭄바이 릴라와티병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인류의 적은 광신주의자들"

토플러, LA타임스 기고

타임스)에 '21세기 종교의 위기'란 칼럼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앨빈 토플러는 "오늘날 세계적 차원의 종교적 영향력 확대는 도덕적 창랑제나 인간의 삶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기보다는 새뮤얼 헌팅턴이 예고한 종교전쟁을 대량살상의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

인류의 적은 오늘날 광신자들의 주된 양성소 역할을 하고 있는 원리주의적인 여러 종교를 내부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토플러는 "세계적 패권과 영향력을 다투는 치열한 싸움에서 종교는 정부와 다국적기업, NGO, 그리고 여타 조직들보다 도덕적으로 더 우월한 지위를 주장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종교가 내부 관상자들의 근거지를 색출, 파괴하며 자율적인 정화절차를 마칠 때까지 종교의 도덕적 정통성은 항상 위협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류의 적은 오늘날 광신자들의 주된 양성소 역할을 하고 있는 원리주의적인 여러 종교를 내부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토플러는 "세계적 패권과 영향력을 다투는 치열한 싸움에서 종교는 정부와 다국적기업, NGO, 그리고 여타 조직들보다 도덕적으로 더 우월한 지위를 주장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종교가 내부 관상자들의 근거지를 색출, 파괴하며 자율적인 정화절차를 마칠 때까지 종교의 도덕적 정통성은 항상 위협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직장인을 위한 동산불교대학 (2년과정)

1. 불교학과 모집기간 : 연 2회 (매년 2월 8일)
2. 불교학과 모집인원 : 150명 (정규, 주간, 통상)

2. 불교한문학과 개설

과목	한문법(1, 2), 한문법(2), 명실보감, 장자, 주역, 천자문, 팔십수법, 천수경, 만야성경,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교수진	심재동교수(동국대), 한정섭박사, 송찬우교수(승가대), 무진장스님

3. 불교미술학과

이론편	인도불교미술, 중국불교미술, 한국불교미술, 동남아불교미술, 불교사찰, 탑, 불상, 회화, 문헌미술, 고려미술, 조선미술, 티벳미술, 현대불교미술, 법화변상도, 정토변상도, 화엄변상도
실기편	민화, 단청, 사천왕, 8부중, 팔상성도, 보살상, 부처상, 영산변상도, 정토변상도, 화엄변상도, 만다라

4. 우리 출학과

지도교수	이재주(서울대 교수) (중요 무형문화재 제 27호, 승무예능 보유자)
교과목	① 우리춤 기본(용출춤의 기본 토대 교육) ② 승무 기본(염불가락, 타령가락, 굿거리 가락) ③ 작법 기본(춤의 기본 사위와 바라춤) ④ 북과 장단기본(북놀이와 우리 장단의 기본)

5. 입학일시 : 2002년 3월 6일 7일 (한문학과, 불교미술, 우리출학과)
6. 원서교부처 : 본 대학 사무국 • TEL 02)732-1206~8 • FAX 02)732-1207 (우)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http://www.dongsanbud.org

포교현장의 법사양성 (3년과정)

2002년도 동산불교 경전연구원 신입생 모집

1. 교과목 및 교수

과목	요일	개설경전	교수	비고(개설과목)
불교학과 (국학정원) (화 일 경)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국학정원경(아미타경, 무량수경)	최봉수 교수	국학정원경(1)(2) · 법화경(1)(2)(3) · 금강경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신화정원경(이동원장자)	한정섭 박사	신화정원경(1)(2) · 화엄경 약한계, 법성경 · 화엄심지품(1)(2)
정토학과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국학정원경(아미타경, 무량수경)	최봉수 교수	국학정원경(1)(2) · 정토삼부경 · 왕생론 · 무량수경중요 · 정원법률
최봉수 교수의 근원불교학과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아함경(사제법 · 12연기법)	최봉수 교수	이함경 · 반야경 · 법화경 · 화엄심지품
송찬우 교수의 대승정원학과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천태소지관	송찬우 교수	천태소지관 · 금강경 · 대승기신론 · 조문(3)번, 능엄경(1)번
인도-티벳어학과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산스크리트어, 팔리어, 티벳어	최종남 교수	산스크리트어, 팔리어문법, 티벳어문법, 법화경중요, 장엄경중요, 보리도처경중요

2. 모집방법 및 전형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강의일시 및 장소
① 불교대학(정규) 이수자 ② 불교교양대학(2년) 이수자 ③ 과목별 이수 희망자	① 입학원서 1통 ② 주민등록등본 1통 ③ 반경합란 사진 3매	④ 불교교양대학졸업증 1통 ⑤ 자기소개서 1통 2002년 2월 1일~ 2002년 3월 2일(토) [서류전형]	• 매주 월·화요일 오후 7시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3. 개강일시 ● 불교학과 : 2002년 3월 4일(월) 오후 7시 ● 근원불교학과 : 2002년 3월 7일(목) 오후 4시

4. 입학금

입실만원

5. 졸업자격

3년과정의 부처님 법음이 가득한 경전(매주 2강좌)을 이수한 분에게 연구원 졸업장을 수여함.

6. 원서문의 교부·접수

본 연구원 사무국 :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 02)732-1206~8 / FAX 732-1207 인터넷 홈페이지 www.dongsanbud.org

인도·티벳어학과 개설!!

1. 동산불교전문연구원에서는 부처님의 경전에 대한 보다 깊은 학습을 위해 새로이 인도·티벳어 원전 강독반을 개설합니다.



최종남 교수(승가대)

2. 교과목

1년차	산스크리트어 : 산스크리트문법 · 법화경중요
2년차	팔리어 : 팔리어문법 · 장엄경중요
3년차	티벳어 : 티벳어문법 · 보리도처경중요

1. 개강 2002년 3월 8일(금) 오후 2시 (매주 금요일)